

윤장현이나 강운태나... 박빙 승부 '혼돈의 광주'

㉠ 선택 6·4 지방선거 D-2

광주시장 선거 민심 르포

지방선거 초유의 접전 구도
민심 두쪽 갈라질까 걱정
일부는 "선택권 늘어 좋다"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의 응답'이 이처럼 주목받았던 적은 없었다. 공천 또는 당내 경선을 끝으로 의미 없는 본선을 지켜봐 왔던 광주시민들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모처럼 자신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현직 광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유력한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지역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후보 안철수 공동대표의 잦은 방문, 박빙 양상 속 양대 세력의 총력전 등으로 이어지는 선거전에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초·중반 무소속 단일후보인 강운태 후보의 선전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추격전 양상에서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백중세로 돌아섰다는 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의 이견은 없다. 윤 후보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관료 출신에 의한 시정을 비판하며 대국적 견지에서 정치적 선택을, 강 후보는 전략공천의 문제점을 파고들며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선택을 각각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광주 유권자들의 응답은 현재까지 팽팽하다.

지난 30일 전남대 경영대 휴게실에서는 30·40대 대학원생들이 모처럼 '광주시장 선거'로 이야기를 나눴다. 매번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등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들은 "전략공천은 분명히 문제지만 누가 대표가 돼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유창호(35·대학원 박사과정)씨는 "윤 후보도, 강 후보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용섭 전 의원 때문에 강 후보를 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홍상호(37·대학원 박사과정)씨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대국적



안철수와 함께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관점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들 대학원생 6명 중 2명은 윤 후보 지지, 2명은 강 후보 지지, 2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20대에서 40대 초반, 전문직 등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후광이 윤 후보를 감싸고 있었다. 또 치열한 선거전 과정에서 드러난 강 후보의 실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대학 휴학생인 김민지(여·23)씨는 "안철수 대표의 특강을 들은 뒤로 팬이 됐으며, 기존 정치인보다 안 대표의 진실성을 100배, 1000배 믿는다"며 "그래서 안 대표가 지지하는 윤 후보를 믿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안대웅(40)씨는 "시민운동가 출신이며 그냥 느낌이 좋은 윤 후보를 찍겠다", 의사 문승일(36)씨는 "시장 재직 중 강 후보가 너무 잦은 과로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40대 후반 이상 남성 유권자 중에서는 강 후보가 압도적인 양상이다. 이용섭 전 국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하고 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정모(56)씨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청렴하고 참신한 인물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용섭 전 의원을 지지했다"며 "그래서 단일화한 강 후보를 선택했고, 승객들에게도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수(77)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를 무시했고 행정력에서 강 후보가 낫다"며, 김미선(여·45)씨는 "능력 측면에서 보면 강 후보가 앞서고 윤 후보는 잘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강 후보를 택했다.

본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 현장에서 만난 광주 유권자들의 반응은 후보 간 본선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시민 선택권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 민심이 갈라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과 함께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용섭 공동선대위원장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전투표율 11.49% ... 지방선거 변수로

■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광주 13.28% ... 광역시 최고

전남 18.05% ... 전국 최고

강진군 28.83% ... 광주·전남 최고

지난 30~31일 치러진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감 결과, 강진군의 투표율이 28.83%로 광주·전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도 18.05%로 16개 시도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13.28%로 전국 평균(11.49%)을 웃돌면서 5대 광역시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2면> 1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결과, 광주는 선거인 113

만8418명 중 15만1214명이 투표해 13.28%의 투표율을 보였고 전남은 선거인 154만9440명 중 27만9천655명이 투표해 18.0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강진군은 선거인 3만3613명 가운데 9689명이 투표해 28.83%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울릉군(34.0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다.

또 전국적인 사전투표율은 서울 11.14%, 부산 8.90%, 대구 8.00%, 인천 11.33%, 대전 11.20%, 울산 10.70%, 경기 10.31%, 강원 14.24%, 충북 13.31%, 충남 11.93%, 전북 16.07%, 경북 13.11%, 경남 11.89%, 제주 11.06%였다.

한편 광주지역 등 일부 사전투표소가 2~3층에 마련돼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청와대 내정



김관진 실장 한민구 내정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인 국정위원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을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정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 정홍원 총리의 제정을 받아 지명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국방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당분간 김 장관이 겸임을 하게 된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탕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49일째
1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 상담교육원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 상담원" 모집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문의 062)605-1112, 1063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생명의 땅 전남 맘으로 적시겠습니다

전남은 넓은 들과 산, 바다와 갯벌, 많은 섬 등 '생명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전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

-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새 활로 찾기 지원
- 저비용 고소득 농어업구조로의 개편
- 섬·갯벌 등 관광평소 조성해 중국 관광객 유치
-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
- 산업·생활·관광수요에 부응한 SOC확충

1952년 영광·법성 출생 / 광주북중 / 일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 논설위원 · 국제부장 / 4선 국회의원(16 · 17 · 18 ·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민주당 대변인 · 원내대표 · 사무총장 · 전남도당위원장 / 한일의원원장 간사장 · 수석부회장

행동하는 혁신도지사
2 이낙연